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2월 24일(금)
--(윤력 11월 21일)--
Пятница
24 декабря 2021г.
№ 49 (1196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새해맞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 센터 앞,

(이예식 기자 촬영)

서울,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 개최

김부겸 총리 "상처 치유에 국가 책무 다할 것"

한국 외교부는 23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334명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국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특별법 발효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은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를 포함해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동포 여러분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슴에 새겨진 역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온 마음을 다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5명이 대표로 참석해 가족과 함께 고국에 돌아온 감회를 나눴다. 특히 전채련 사할린영주귀국 동포 대표가 하는 인사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사할린동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주귀국자들의 그림 작품을 전시하는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 전시회'를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된 사진 중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에 참석해 사할린 동포 최고령자인 전채련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사할린 보건 분야의 실천, 연방 차원에서 높이 평가

전략 주도청이 전 러시아 보건 분야의 우수 기획 실행 선정을 완료했다.

경연 결과 전국 각지에서 13개의 기획들이 최종 선정됐다. 그중에 사할린주의 '스마트 응급센터'와 '65세이상 연령의 주민에게 심층 건강검진' 두 개의 기획이 포함돼 있다. 이 기획의 시행 덕분에 외딴 마을들을 포함해 사할린 지역에서 보건상 1차 의료 서비스 이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스마트 응급센터'도입에 따른 사할린주의 실행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외래환자 진료의 의료위생적 지원>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게 했다.

이 기획 덕분에 사할린의 벽촌 10곳의 의료센터에 지역 주민들 진료를 위한 현대적 의료장비가 갖추어졌고, 주 병원과 구역 의료진과의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층 건강검진 도입 기획도 심사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3위의 명예를 차지했다. 이 기획 덕에 65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 6만8천 명이 심층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종합적 검사 및 절차상 특별히 편안한 조건으로서 일반 외래 진료와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번 경연에 70개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기획들이 접수된 가운데 결승에 21개 기획이 출전하게 되었다. 이미 그 기획들의 실행이 효과를 입증했고, 개인 병원이나 국립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수한 기획들은 <2022 - 보건 기구>제 10회 국제대회의 일환으로 경험을 발표하고, <보건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도자>라는 자질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략 주도청은 <스마트테크>를 거점으로 기획을 실행하고, 러시아 지역들에서 연구와 확산을 장려함으로써 모든 부문의 우승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단신

사할린으로 물품 배송 문제 해결

지난 한 달 반 동안 사할린 지역으로 1만 개의 컨테이너가 배송됐고 12월 말까지 15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더 배송될 예정이다. 연해주 항구에서 사할린주까지 컨테이너 해상 운송을 진행하는 해운사들에 따르면 물품 배송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다. 현재 20피트의 컨테이너 900개가 사할린으로 배송될 예정인데 이는 연평균 임계치이며, 항구의 표준 적재량은 1500개이다.

사할린과 일본, 탈탄소화 방안 논의

사할린주에서 탈탄소화 기획 실행의 일환으로 도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담당자와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할린주 환경보호부 장관 안드레이 스트렐니코프는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사할린주의 주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사할린주에서 지역의 가스화를 포함한 기후 프로그램의 핵심 정책, 교통수단에 가스 연료로의 전환, 용접용 가스 재활용, 재생 에너지원에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측은 환경보호로 시행하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투루프의 400가구, 초고속 인터넷 접속

현재 쿠릴스크를 비롯해 키토워에와 레이도워 마을의 200가구 이상이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로스텔레콤 회사가 설치를 맡았으며 인터넷 접속은 무료로 개인 구역의 주민들도 접속할 수 있다. 주 정부의 공동 자금으로 쿠릴시지구의 학생들에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주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역에서 연결의 단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지 구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사할린 주 보건부는 12월 22일 기준 코로나19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1334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478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509명, 입원 병상은 201개다. 신규 확진자는 148명이다. 총 249,308명이 백신접종을 받았고, 지난 22일 1차 백신접종을 276명, 제3차(6개월 이후)는 485명(총 36,011명)이 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버스 요금 인상

2022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내버스 요금이 1인당 25루블리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첫 전기버스 25대가 운행되는데 일반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25루블리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와의 인터뷰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 촉구, 정기적 행사와 프로그램 계속 추진

2021년이 저물어간다. 이 해가 어떤 해였는지 그리고 내년 계획이 어떤지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 게 알아보았다.

- 2021년은 어떤 해였 습니까? 이번 해의 특징 은 무엇이며, 주한인협회가 계획한 것은 모두 이루어졌는지요?

- 2021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1일부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한편으로 뜻깊은 사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실망을 안겨준 법입니다. 종전 75년 만에 채택된 이 법은 모든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이 세 번째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할린 한인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반발'이 사할린주 한인협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책임 추구보다는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가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우리가 2015년에 실시한 사할린 한인 2세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데이터 수정을 위한 작업도 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사할린동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주한인협회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 한국 측에서 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귀국자 수, 사할린 잔류자 수, 그리고 영주귀국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국적이 아니라 이중국적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 얼마 될지, 그 수치도 필요합니다. 이중국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꼭 양국 간, 러시아와 한국의 협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18일 우리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청원문(본지



2021.12.17호 게재)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2020년 4월 29일에 채택된 법에 사할린동포의 모든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75년 이상 전 비극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개정법이 곧 채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을 한국 외교부가 맡은 가운데 사할린에서 영주귀국 사업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가 실행했습니다. 저희 한인협회 측에서는 한국 적십자사에서 영주귀국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 돕기도 했습니다. 잘 아

시다시피 올해 334여 명(계획 350명)이 영구 귀국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제한 조건에서 2 번째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비'와 '동정 (관심)'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 아래 기획들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주로 청소년회 덕분에 1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의료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여 고령세대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많은 계획을 재고하고 조정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광복 76주년도 올해 처음으로 널리 쇠지 못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2021년에 열리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김치축제인데, 새로운 형식으로 추진해서 행사를 더욱 다채롭고 흥미롭게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한인협회는 전국 청년포럼의 일환으로 흙스크에서 <뽀세>청년축제를 공동

으로 주최하여 사할린주 정부의 공식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할린동포청소년 캠프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일이 아닌 7일로 여느 때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행사로는 태권도축제, <뽀세>활동교실, 씨름축제, <장인들의 박람회>, 주한인협회에 관한 사진 전시, 축하공연 및 기념식 등을 개최했습니다.

계획한 모든 행사는 다 실시했는데, 다만 참가자 제한 (30명 이하) 때문에 건강관리 행사는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그란트(장려금)기획 4개(주한인협회-1, 청년회 -2, 흙스크한인회-1)를 따냈고, 한인문화센터에 새로운 장비들(큰 LED 스크린과 전시를 위한 장비)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와 협력하는 단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한인협회에 법인으로 가입된 모든 8개 단체와 잘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공식적으로 등록

된 사할린 한인 청소년회 지역 단체가 많은 기획들을 성취했습니다. 파트너로서 이들은 청소년 역사캠프, 건강관리 의료 프로그램, 김치축제, 어버이날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행사를 함께합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 같은 경우 주한인협회 협조 아래 큰 행사 2개(김치축제의 부속 행사로 씨름경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씨름축제)를 치렀고, 태권도협회도 여러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파트너인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 및 동양학 대학과는 한국 문화에 대한 경시대회, 한국 문화체험 축제와 활동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협회는 주한인협회의 모든 행사에 협력하고 있고 특별법 관련 활동과 작업,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성회는 <60+>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세대 동포들의 여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날 행사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지방 한인회들도 현지에서 여러 활동을 펼칩니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비공식적으로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주민들에게 증명서 발급

의료적 도움 없이 코로나19를 앓았던 주민들 중 2021년 1월 이후 앓았을 경우 항체 검사를 한 후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러시아 부총리 타치야나 골리코와가 발표했다.

"2021년 1월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던 국민들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이에 따른 임상분석연구소에서 항체 검사를 진행하되, 항체량을 초점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체의 유무('있다', '없다') 결과만을 도출할 것이다.

양성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들과 연관하여 피씨알(PCR)검사와 현재 얻은 항체 존재에 대한 정보들이 일치할 경우 그 사람에게 코로나19 완치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되 증명서 기한은 1년이다."라고 국가두마에서 큐알코드(QR-code)에 대한 법안 규정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완치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피씨알(PCR) 검사를 받지 않은 국민은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에게 항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 증명서가 발급되지만 기한은 6개월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이외에도 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러시아인들은 항체 검사 후 6개월 기한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골리코와 장관이 전했다.

러시아남, неофициально переболевшим ковидом, начнут выдавать сертификаты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переболели ковидом, но не обращалис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смогут сдать тесты на антитела и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если они болели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вице-премьер России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

"Для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имеют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есты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и по которым в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не был поставлен диагноз,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пройти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едицинск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анализы на наличие антител, при этом мы не будем мерить антител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х количества, мы будем получать только результат "да" или "нет". Соотносить эти данные с базой положительных тестов и при совпадении ПЦР-теста и данных о наличии антител, полученных

сейчас, гражданину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умент о том, что он переболел, и срок действия документа будет у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год", — сказала она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QR-кодах в Госдуме.

Она уточнила, что гражданам, которые не сдавали ПЦР-тесты, но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переболели, тоже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сдать тест на антитела. В случае их обнаружения им будет оформлен сертификат, но сроком действия в полгода, сообщает ТАСС.

Кроме того, Голикова сообщила, что россияне, привившиеся иностранными вакцинам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ертификат о вакцинации на полгода после теста на антитела.

사할린 주민들,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새해 축하 선물

'기쁨의 바구니' 전 러시아 자선행사가 사할린주에서도 시작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행사는 각 상점에 배치된 특별 바구니에 사탕이나 문구류, 장난감 등을 넣는 것이다. 모아진 물품은 새해 전날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주민들도 아동용 선물을 사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데 사탕, 과일, 장난감, 그림도구, 스के치북 등을 넣을 수 있다.

전 국민운동의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제트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와 스네구로츠키(눈 소녀)의 의상을 입고 불우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쁨의 바구니'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소매 체인점에 배치돼 있으며 바구니가 가득차면 자원봉사자들이 선물을 전달하게 된다. 이 행사는 12월31일(금)까지 진행되며 전 러시아 국민운동 및 청년사업청의 후원과 '우리 함께' 전 러시아 활동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здравить с Новым годом детей из сложных семей

Всероссийск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Корзины радости" стартов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е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оложить в специальные корзины,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сладости, канцтовары или игрушки.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их передадут детям из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ённых семей.

Кажды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жет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ля ребенка и положить в корзину. Это могут быть сладости и фрукты, игрушки, краски и альбомы. Активисты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олонтеры оденутся в костюмы Снегурочек и Дедов Мо-

розов и передадут эти подарки нуждающимся детям.

"Корзины радости" расположены в популярных торговых сетях. Развозить подарки добровольцы будут по мере наполняемости тележек. Ак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31 декабря, она проходи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д эгид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Мы Вмест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ообщает ОНФ.

사할린, '시의 섬' 기획 총결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시의 섬' 체호브 센터와 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공동 기획 발표회가 12월 16일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기획은 올해 4월에 시작됐다고 진행을 맡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전문관 나탈리아 스트레콜롭스카야가 말했다.

안톤 체호브 극장 센터의 배우들이 사할린 시인들의 시를 낭독한 시 모음집 '시의 섬' 기획이 마무리됐다. '시의 섬'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사이트의 새로운 항목이자, 시 선집의 제목이기도 하다.

'시의 섬'은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하루 전에 제작된 사할린 시인들의 첫 영상시 선집으로서 우리 섬들의 시 개척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시 선집에는 사할린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살았던 러시아 작가연맹 회원의 시인 27인의 시가 수록돼 있다.

27인의 시인 중에 3인은 사할린 한인 (김증송, 허 로만, 양 세르게이)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 선집에 수록된 시들과 27인의 시인들에 대한 정보, 전자책, 발표된 영상시는 12월 17일부터 주 도서관 홈페이지 '시의 섬' 특별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상시 작품들은 차차 추가해 올릴 예정이며 앞으로 주내 모든 도서관에서만 아니라 사할린의 모든 학교들과 문화회관, 클럽, 박물관, 예술학교에서 이 시집을 만날 수 있게 된다.

Итоги проекта "Острова поэзии" под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зентаци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 Чехов-центра "Острова поэзии", реализуемог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прошла в главной библиотек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16 декабря.

Ведущая вечера, специалист СахОУНБ Наталья Стреколовская, напомнила, что проект стартовал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맞이 자리 마련

지난 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건물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맞이 행사가 있었다. 이날 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시한인회 안영수 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임원들이 환영했다. 정성껏 차려진 명절상, 새해축하, 노래와 춤 등 새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안겨주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 모임은 한 달에 두 번이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휴정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영주귀국한 분들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조심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노인정 모임에 나가는 어르신은 조금 적어졌다. 그래도 좋은 휴식처가 되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제9회 사할린 K-POP 축제 개최



12월17일(금) 케이팝(K-POP) 경연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사할린에서 한국학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일련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오늘날 한류는 K-POP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사할린에도 이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 따라서 사할린에서 열리는 K-POP 축제는 언제나 기다려지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행사이다. 사할린에서 케이팝(K-POP)축제는 2012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내년에는 K-POP축제 10주년을 기념한다.

사할린에서 한국학 30주년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들은 한국의 언어, 전통, 문화의 모든 면을 밝히 보여주었다. 행사는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의 주최 및 후원 아래 진행되었고 또한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들은 축제 조직과 진행에 적극 협조했다.

이번 케이팝(K-POP)경연에 사할린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솔로와 팀들이 참가했으며 경연은 노래와 춤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노래 부문에서 8개 출연, 춤 부문에서 10개 출연이 있었다. 보컬 부문에서 체르바코와 아나스타시야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 시 문화회관, '페닉스' 보컬 팀의 단원)와 'KGV' 그룹이 1등을 했고 댄스 부문에서는 '플로우모션 키즈' 팀('에트노스'예술학교)이 우승했다.

우승자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축제의 상징이 새겨진 가방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지난해 축제의 참가자들은 이미 스스로 교사이자 안무가가 되었다. 사할린 K-POP 축제에서 다수 수상을 한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졸업자인 드료모와 알렉산드라는 현재 코르사코브 2호 중학교의 한국어 교사이자, '플로우모션' 가무 스튜디오의 안무가이기도 하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알렉산드라의 학생들은 댄스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날 축제의 방문객과 참가자들은 활동교실에서 K-POP 플래시몹 댄스와 지에스(GS) 그룹의 미니 댄스에도 참여했으며, K-POP 상징 포스터, 방탄소년단의 앨범 버터(Butter), BTS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재를 걸고 추첨과 퀴즈대회가 열렸다.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어문.역사 및 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라 학장은 "내년에는 K-POP 10주년을 맞아 축제를 좀더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의 참가자들과 내빈들은 큰 감동으로 소감을 전했다.

"저는 한국학과에 입학했지만 한국의 현대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방탄소년단 그룹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행사 이후, 저는 K-POP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강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라고 동양학과 2학년 학생인 케치노와 엘리자베타가 말했다.

앞으로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펼쳐질 2022년의 K-POP 축제를 사할린의 K-POP 팬들은 벌써 고대하고 있다.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 위로비요바 다리아 2학년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신PD의 K 리포트]

눈이 하는 말

마스크 쓰고 지낸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쓰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눈만 겨우 내놔야 합니다. 마주보고 대화할 때, 눈 이외에는 얼굴 표정을 살필 수 없어 답답합니다.

'참아야지 별수 있나.' 하다가도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창 '사회적 상호작용'을 익혀야 할 아이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 언어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이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굴 한편에 작게라도 미소가 지어져 있다면, 아이들은 혼나면서도 선생님의 믿음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엄한 꾸중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짝꿍이 '싫어'라는 짧은 말에 잔뜩 화난 표정을 더하면, 그 심각성을 '싫다'는 말 이외의 증거들로 판단하게 되며, 또 표정 어두운 문구점 아저씨가 '너에게만 싸게 주는 것이니 빨리 사라.'고 해도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자주이든 가끔이든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만이 아닌 표정과 함께 소통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익히는 것이 아이들 성장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화의 단계입니다.



"사할린아! 잘 있어!" 1992

작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선생님, 친구들, 문구점 아저씨, 학원 버스 기사님들을 마스크에 가려진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빼꼼히 내어놓은 눈이 얼굴에서 유일한 '비언어' 전달 매개인 상황을 앞으로 당분간 이어가야 합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선생님의 꾸지람, 친구의 '싫어.', 문구점 아저씨의 마케팅 언어가 마스크에 가려진 채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 알버트 메라비안은,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말해지는 내용(word), 음색(tone of voice), 몸짓(body language)의 각각 비중이 7%, 38%, 55%'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까지 명명된 이 이론은, 사람 사이의 감정적 호불호를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입으로 나오는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다소 파격적인 이론입니다. 언어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말투를 합쳐도 절반이 안됩니다. 의미 전달을 완성하는 나머지 55%는 몸의 언어, 특히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일 겁니다.

그렇다면, 눈만 내놓고 하는 대화에는 진심을 충분히 담을 수 없는 걸까요? 대학에서 미디어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 역시 몸짓, 표정 같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얼마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수차 고국을 방문한 <새고려신문> 배순신 대표가 선물해준 사진집 <귀환>의 표정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예식 선생님이 '망향의 한, 이산의 아픔, 그리고 일상'을 흑백톤으로 한장 한장 담아낸 사진들 속 얼굴들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씌우듯, 피사체분들의 눈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가만히 한동안 눈이 하는 말을 들여보려 했습니다. 10여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메라비안의 법칙>이 반대 증거를 만나 일순간에 무너지기라도 하듯, 그 눈들은 고향, 가족, 이별, 기쁨, 슬픔, 분노, 원통, 희망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크고 또렷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방향은 비록 영주귀국하는 비행기를 향하지만 눈길을 사할린 공항 철망 너머에서 눈물로 손 흔드는 가족, 친지들을 담아가려는 눈, 정 깊은 친구와의 이별을 차마 못견뎌 하며 질끈 감아버린 할머니의 주름진 눈, 그 모든 눈들에서 50년 긴 세월의 이야기가 흘러 넘칩니다.

위문공연차 1990년 사할린을 방문했던 가수 주현미님이 동포분들과 눈맞추며 찍은 사진속 이야기가, KBS 2라디오 생방송하는 스튜디오에서 마주치는 2021년 현재 주현미님의 커다란 눈망울을 통해서도 잘 들려옵니다.

사진 속 주인공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조심히 가세요." 1992



안녕, 1992



부모와 헤어지는 자식들, 1992



위문공연차 사할린에 온 가수 주현미, 1990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с" признан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Этнос" стал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2021 года сражались 59 школ-участник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ДШИ "Этно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шла в финал.

Учредителе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я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Ф.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2014 года и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выявление молодых дарований, поддержку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В I туре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По итог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город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а ДШИ "Этнос".

В окружном этапе (II тур)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школы искусств —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из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Конкурса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езентовать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явле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ых талантов, популяризацию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оссии, решение важных социа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задач в регионе, разви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компетенций учащихся, повышение их мотивации к обучению.

Так, детской школой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2021 года "Отражение времени", посвященный 25-летию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Школ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окружного этапа и вышла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который со-

стоялся в Москве. Всего на завершающи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из 59 школ-участников второго тура вышли 8 городских школ — победители окружных этапов в кажд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ДШИ "Этнос", конкурсным испытанием финала стала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детской школы.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финалистов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состоялась на сце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Большого театра России. Диплом и памятную доску директору ДШИ "Этнос" Анне Вороховой вручил профессор и 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мени П. И. Чайк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 Сокол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Новогоднее настроение подарили бабушкам



Предновогодний клуб бабушек в ЮСМОК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интервью, съемки, танцы, песни,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пожелания здоровья и ожидание хорошего нового года подопечным бабушкам и всем нам!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К)

Музы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K-POP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17 декабря прошел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он стал завершающи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кореевед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Это событие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как одно из ярких завершений уходящего года от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показавшие свои таланты в исполнении популярных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и каверов на танцы известных всем фанатам групп.

К сожалени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кор фестиваль не проводился, но просьба от участников поступало настолько много, чт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озобновить фестиваль. Упорная работ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ачалась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о мероприятия. Всё было продумано не зря. Каждый студент,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й корейской волно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едагогов что-то вложил в общее дело.

Конкурс прошел со множеством сюрпризов, в приятной и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а также позволил завести новых друзей. Кто-то осуществил заветную мечту, выиграв альбом "Butter" группы BTS в лотерее. Другие ребята, попытав счастья с заветным номером, теперь могут улучшить свои навыки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ри помощи учебников "Learn Korean with BTS", также теперь можно узнать фанатов k-кор музыки по эко-сумкам с логотипом конкурса и изображениями все той же группы BTS.

Напряженный момент ожидания итогов был разбавлен викторинами, показавшими зн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современных айдолов, но и групп прошлых поколений, весел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разминкой и мастер-классом с кусочком хореографии группы NCT.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достойны призового места, но это конкурс и слово жюри - финальный вердикт. И мы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никто не расстроился, ведь все же участие, показать себя и просто получа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на сцене - это главное.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шопперы с символикой фестивал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юбилейный 10-ый K-POP фестиваль, планируем устроить что-то грандиозное», - анонсирова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Лим Эльвира.

Участники и гости остались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мероприятия.

«Я поступила на факультет корееведения, но никогда не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корейской современной музыкой и знала только группу BTS. Но после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у меня воз-



ник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K-POP и появилась сильная мотивация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усерднее», - рас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2 курс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Кечинава Елизавета.

Поклонники K-POP на Сахалине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т следующий K-POP фестиваль 2022 года, который обещает быть грандиозным и еще более зрелищным.

Мы рады, что проводятся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Виталина Мандрейкина, Анастасия Морозова,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Захоронены останки 370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20 декабр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370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боях в период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Они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о время раскопок в местах сражений. Большинство останков предстоит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среди них 281 южнокореец, 24 северокорейца и 65 китайцев. Раскопки проводились с мая по ноябрь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В церемонии захорон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Пак Чэ Мин,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Хван Ги Чхоль.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начаты в 2000 году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50-летия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За это время удалось обнаружить останки более чем 12 тыс. погибших.

Ц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астут 13 месяцев подряд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1 декабря, индекс цен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главный барометр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инфляции, составил в но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112,99 пункта, что на 0,5% вы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Показатель растёт 13-й месяц подряд.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дом ранее, он вырос на 9,6%,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резким увеличением с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Рост вызван в основном высокими ценами на сырьевые товары, включая нефть и уголь, что привело к увеличению стоимости производимой продукции. В ноябре цены на уголь и нефтепродукты выросли на 3,8%, на хим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 на 0,7%, на продукц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на 1,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ыросли в ноябре на 3,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быстрым ростом за десятилетие.

7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ужесточ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71,3%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ужесточ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держивание COVID-19.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14 по 18 декабря среди тысячи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РК агентством Research View по заказу Азиат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здоровью и 28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ой же ответ дали 94,5% участников аналогичного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нижение поддержки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жители страны устали от жёстких мер в рамках затянувшейс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лож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карантинн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низилась с 75,9%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 49,6% сейчас.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Группа BTS – шестой год подряд является лучшим исполнителем K-поп по итогам опроса KBS World Radio

Группа BTS шестой год подряд стала лучшим исполнителем K-поп уходящего год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слушателей KBS World Radio. Группу назвали «Артистом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почти двух миллионов слушателей в 208 странах. BTS также победили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бойз-группа», а в пятёрку лучших песен года вошли три их произведения - Butter, Permission to Dance и Dynamite. Первое место в пятёрке лучших песен года заняла Alcohol-free группы Twice, которая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женская группа».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с 22 ноября по 6 декабря.

Авиакомпания Asiana возобновит в декабре полёты на Гуам

Asiana Airlines, второй по величине авиаперевозчик РК, возобновит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полёты на Гуам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числа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и постепенным переходом страны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ачиная с 23 декабря, 188-местный самолёт A321NEO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два рейса в неделю по маршруту Инчхон-Гуам,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возобновит полёты на Гуам после 18-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Прошедшие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и представившие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ПЦР-теста,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обязатель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на Гуаме. Ранее компания Asiana Airlines возобновила полёты в Сингапур и на Саипан.

Права на комикс «Зов ада» проданы в 11 стран мира

Права на изд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кса «Зов ада», лёгшего в основу одноимённого популярного на Netflix сериала, были проданы в 11 стран мира, в том числе в США, Японию, Францию, Италию, Германию, Испанию и Тайвань.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Мунхак тоннэ», выпустившем оригинальную версию комикса. В Японии права на издание комикса купило извест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Futabasha. Англоязычная версия комикса выйдет под логотипом Dark Horse Comics – ведущего издателя графических романов в США, обладателя прав на издание работ на тему «Звёздных войн» и «Аватара».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выхода мини-сериала «Зов ада» на платформе Netflix резко возросли продажи комикса в самой РК. Сериал возглавил рейтинг Netflix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осмотров уже в первые сутки после премьеры. (RKI)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театральной сцене Пусана

Театр "Андерсен" в Пусане в театральной постановке «Сахалинское море» ("사할린의 바다") увековечил историю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ена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и их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историю нашего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алеко не каждое событие или народ становится геро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ли сценического действия. Для этого должны совпасть как минимум несколько факторов. Один из них – это желание директора театра вложить свое время и творческую энергию в эту постановку. Г-жа Херан Кан (강혜란) в доковидные времена приезжала на Сахалин и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рониклась историей на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просто все забыли на этой далёкой русской земле, и только через 45 лет им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살아나야지... 돌아가야지 (надо выжить.... надо вернуться...)," – повторяет главный герой 고장식 (Ко Виктор) в каждой сцене как мантру. Возможно, именно это жгучее желание увидеть своих близких, вдохнуть родной воздух и услышать родные мелодии давали



ему силы жить и надеяться. Судьба этого персонажа – собирательный образ тех, на чьи плечи выпала нелёгкая доля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с меткой "БГ" и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ю.

Сценарий написан драматургом Кёнхван Чоном (정경환), который вместе с директором театра неоднократно встречались с нашими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уезде 정관,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едалеко от Пусана. Их рассказы 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легли в основу сюжета, поэтому, возможно, каждая сцена была такой близкой, такой правдоподобной. Именно так рассказывали и мне родители о жизн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 и про радио под одеялом, чтоб вдруг не услышали соседи, и про первую реакцию от встречи с "большими, волосатыми, голубоглазыми людьми" и про учителей-корейцев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приехавших на работу в первые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Сахалина.

Конечно,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местного" колорита: любимая туалетная тема и излишняя гротескность некоторых персонажей, но это нисколько не помешало окунуться в воспоминания, улыбаясь и роняя слезы от почти забытых сцен.

Тен Жанна, Пусан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готовые обеды доставляют дроны

Провинция Чолла-Намдо - регион, который частично находится на островах. Это вызывает проблемы с доставкой грузов, но в уезде Кохын-гун они будут скоро решены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дрону весом 20 килограммов с шестью пропеллерами прикреплён ящик, в котором разместили несколько порций готовой еды и напитков. Дрон поднялся на 30-метровую высоту и направился в сторону пролива шириной 4 километра, который отделяет небольшой остров от материка. Доставка еды заняла 15 минут. Это была пробная доставк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езда Кохын-гун совместно с двумя ча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Однако не за горами тот день, когда он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По словам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компании Marine Robotics Сон Си Хёна, кроме готовой еды,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можно будет доставлять лекарства и другие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Эта услуга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не ходят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местах. Д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50 пробных доставок на пять островов. В уезде Кохын-гун идёт создание дрон-центра и зон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Тем временем,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 тем, чтобы создать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именения дронов в сфере логистики. Планируется включить данные виды техники в категорию средств перевозки, применение которых регулируется Законом о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ах. Авторы поправок надеются на то, что расширение применения дронов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услуг доставки. KBS World

광고-광고

새고려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практики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лучи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завершил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тбор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са были выбраны 13 проектов из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Два из них представляю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Умный ФАП» и углубленна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жи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65+.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практикам на островах удалось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доступност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 в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се эти новшества внедр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новной приоритет в их реализации отдается именн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 там, где качество перв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олгое время вызывало нарекание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ысокая оценка, которую получили наши медицинские практики,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мы идем правильным путем. Я искренне и от всей души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причастных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 ваш труд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ектом, впечатлившим жюри и занявшим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Первичная (амбулаторная)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стала практи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недрению «Умного ФАПа». Она была реализована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в десяти сельских медпунктах появилось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роходят диагностику и получают консультации врачей из районных и областных больниц.

– Сотни людей смогли оперативно проверить здоровье,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пациентам требовалась экстренная помощь. Главное, ч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ботает на пользу людям, приносит видимый результат,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оект по внедрению углублен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тоже не прошел мимо вниман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онкурса. Эта практика заняла почетное третье место.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почти 6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в возрасте 65+ смогли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по углубленным программам. От привыч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они отличаются большим набором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особыми комфор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во время процедур.

– Мне 78 лет, я никогда еще не видела, чтобы мне было столько внимания. Были беспокойства по здоровью. Но меня проверили не только по моим жалобам, но и все, что только можно. И лечение назначили, очень довольна, – поделилась одна из пациенток,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лли Кучкова.

Всего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больше 300 заявок из 70 регионов, в финал вышел 21 проект. Практики уже доказали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больницах или частных клиниках.

–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оводимого отбора – выявление и тиражирование успешных практик,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перегрузки и огромного напряжения, в которых находится наша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уководителям очень важ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достижения, которые доказали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омог объединить неравнодушных людей и выявить самые полезные идеи, которые могут улучшить оказание и организацию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ектор высшей школы организации и управл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Гузель Улумбекова.

Победители смогут презентовать свой опыт в рамках X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ОргЗдрав-2022» и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на курсе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Эффектив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Также АСИ окажет экспертную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мощь победителям всех номинаций: практики пополнят базу «Смарт-ки» и будут рекомендованы для изуч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В Корсаков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фасад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К наступлению холодов здание утеплили и придали ему новый эстетическ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вид.

– Ремонт проведен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пущенно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мы приводим в порядок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ем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овершенствуем систему записи на прием к специалистам. Для пациентов и врачей должны создаваться самы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ы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м недостатком здания 70-х годов постройки была низкая теплоемкость. Старый фасад температуру в помещениях «не держал», а, кроме того, Госпожнадзор признал его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требованиям, предъявляемым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ям.

– Капремонт продолжался около четырех месяцев. Понятно, что добросовестно подошел к выполнению всех работ. Рабочие демонтировали старую фасадную систему, утеплили здание и после этого установили новую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ерамогранита. Также по все-

му периметру здания сделаны отмостка и пандус. Сейчас температура в помещениях повысилась, пациентам и медицинскому персоналу стало гораздо комфортнее здесь находиться,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Константин Горфункель.

Поликлиника рассчитана на 27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Сюда обращаются дети со всего района. За один визит бывает необходимо посетить несколько врачей или процедур.

– Раньше здание продувало, пациент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жаловались на прохладу. Сейчас ничто не отвлекает от приемов. Даже к строительному шуму посетители отнеслись с пониманием. Родители отмечают, что сейчас стало теплее. Все теперь обязательно сдают вещи в гардероб, а раньше чаще оставались в куртках, – добави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ой Валентина Кузнецова.

В прошлые годы для удобства посетителей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лностью перестроили регистратуру, добавили в нее открыт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ярких красок. В холле установили инфомат, чтобы каждый мог оперативно получить талон.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рилегающую к поликлинике территорию и создать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Троим ветеранам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почетных гражда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удные знаки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получают участник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асилий Андреев, Вячеслав Гаврилов и Владимир Сичкар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т почетных граждан также и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силий Андреев родился в 1930 году, участвовал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н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2 степени; медалью «За победу над Японией». Василий Николаевич – ветеран отрасли связи – внес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его трудовой стаж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47 лет. Долгое время он возглавлял Сахалинский обком профсоюза работников связи.

Участник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боев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стровной земли, Вячеслав Гаврилов родился в 1926 году. На его счету немало самых высоких наград – орден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2 степени, медали «За победу над Японией»,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За отвагу», медаль Жукова. Трудовой стаж Вячеслава Васильевича – более 45 лет. Он является ветераном угле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Долгие годы трудился на шах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ахалинуголь».

Звание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воено также Владимиру Сичкарю. Участник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одился в 1927 году. Ветеран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ями «За победу над Японией», «300 лет Российскому флоту» и медалью Жукова. Его трудовой стаж – более 40 лет. Владимир Федотович внес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на Сахалине.

Напомним, кандидатуры для присвоения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комиссия,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ят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ученые, ветеран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Решение принимается путем открыт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чет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ются 65 островитян. Звание присваивается ежегодно не более чем трем лицам из числа претендентов за выдающиеся заслуг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звани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за личное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долг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ового форма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работало четверт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кадровое агентство «Работа России». Его открыли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283а – в здании бывшего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ходе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мещения получили новый дизайн. Была перестроена работа с соискателями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 теперь все услуг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мплексно и адресно, исходя из конкретной ситуации. Это позволит сахалинцам получать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и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жизни.

Перезагрузка начинается прямо с порога: у центра появился свой фирменный стиль в интерьере, экстерьере и даже одежде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ть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по принципу «одного окна». Также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омната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сектор цифровых сервисов и детский уголок.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ш регион в 2020 году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илотному проекту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центров занятости.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сегодня нужна проактив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не просто окажет услугу, а будет мотив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лужба занятости должна стать местом старта успеш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арьеры человека. Сюда должны обращаться не от безысходности, а от стремления сделать свою жизнь лучше, повыси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и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 подчеркну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

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ового формата обратилась Мария Гавкуска. Девушка мечтает стать педагогом-психологом.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нты предложили островитянке пройти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а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а помогут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 Я довольна кажд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со мной. Они выслушали мою историю, предложили пройти переобучение. Я благодарна за помощь, – рассказал сахалинка.

Обратившиеся за помощью в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смогут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редпочтения или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открытого кадрового отбора,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с соискателями беседу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Большинство услуг станут электронными –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 единой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Работа в России», что сэкономит врем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ереобучение коснулось и сам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Они осваивают современные навыки карьерного и кадровог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Модернизация затронет все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действие занят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современные кадровые агентства появятся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до 2025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решили проблему дольщиков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ложности возникли в связи повышением стоим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ищ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проработал вопрос сохранения стоимости жилья.

– Для дольщиков оставили ту цену, которая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в договорах с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застройщиком – ООО «СЗ «ПСК-ПУНК». Эта компания, к сожалению, не выполнила свои условия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долев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ужно понимать, что рыночная стоимость жилья выросла, стоимость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тоже. Сегодня невозможно построить жилье за те же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отводились в 2019 году. Но мы совместно с новым застройщиком – ООО «СЗ «Аврора» – нашли выход из ситуации. Участникам долев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плачивать за свои квартиры. До конца января 2022 года застройщик проведет встречу с дольщиками для пояснения всех част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также будут сохранены, и людям не придется обращаться за выплатой повторно,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ых.

Сегодн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новый застройщик занимаются оформлением правоустанавлив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на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ООО «СЗ «Аврора» до нового года получит заключение экспертизы и после планирует пройти аккредитацию в банке для открытия эскроу-сче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участников долев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Мы видим, что дело сдвинулось с мертвой точки. Новый застройщик рассказал, какие документы от нас требуются и как дальше с нам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итуация непростая, но нас уверили, что все разрешится,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дольщик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объект незаверш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дан новому застройщику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Сейчас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тырех домов по 24 квартиры в Троицком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По словам подрядчика, работы возобновятся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итель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и к концу 2022-го дольщики смогут переехать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онлайн-конкурсе «Дорогой жизни названа!»

Конкурс приурочен к Дню пол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Ленинграда от фашистской блокады и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ы за Великую Державу».

Организатор конкурса –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ворческий Союз Работник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Проводится о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Комитета по культу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и ряда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приглашаются одаренные дети, подростки, творческая молодежь и взрослые участни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3 лет и выше.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могут стать как любители, та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работающие в жанре народ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ключающего в себя: авторское, поэтическое, вокальное, музыкально-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е и иные виды искусств.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aragorn-studio@mail.ru с пометкой конкурс «Дорогой жизни названа!» до 27 янва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Пол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нкурсе доступна на сайте.

Отметим, День пол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Ленинграда от фашистской блокады отмечается ежегодн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27 января. Этот день посвящен всем жителям Ленинграда и воинам, которые его освобождали.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конкурса «Дорогой жизни названа!» яв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 том героическом период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연말 온정의 생필품을 드리다

21(화), 22(수)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안산 고향마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신규 입국한 340여명의
동포들에게도 선물 전해

연말을 맞아 전국 31개
소에 거주하고 있는 2,86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들에게 재외동포재단(이사
장 김성곤)이 8천만원 상당
의 선물을 전달했다.

김성곤 이사장과 직원들
은 2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
터, 22일 안산 고향마을을
방문해 영주귀국 사할린 동
포들을 위한 영양제를 직접
드렸고, 직접 방문하지 못한
지역에는 영양제, 세탁세제,
생필품 선물을 보냈다.

올해 사랑의 선물 나눔
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11월부터 신규로 영주귀국한 340여 명의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지원캠프를 통해 전달 된다.

김성곤 이사장은 안산고향마을 사할린동포들과 함께 신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캠프를 둘러보고 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근에 있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에도 방문하여 국내에 재정착한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곤 이사장은 "사할린 특별법 시행으로 더 많은 사할린 동포분들이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 기쁘게 생
각하며, 작은 선물이지만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위안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고, 이에 안산고향마을 노
인회 주훈춘 회장은 "코로나로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데 매년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주니 큰
힘이 된다." 고 고마워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사할린 동포들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며, 현재 서울과 인천, 안산, 부산 등 30여 지역에 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통한 미래! 투표만이 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고,
종식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
일 치러집니다.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발생까지 덮쳐
팬데믹으로 인한 대선 재외선거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
거 제도의 개선 없이는 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가 반복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재외동포사회는 그동안 선거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었고,
한인회 사무실 등에 선거등록 신청서를
비치해 직접 등록 접수를 하는가 하면
재외동포 언론사들이 선거 참여를 독려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을 파견
했습니다.

이후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았
던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적 경험으로
재외선거관 파견 대상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전문가, 학계와 동포단체 등 수
없이 발제하고 토론하고 재외동포 사회
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말하고 있지
만 변화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라지는 것 없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
합리한 제도 속에서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투표율, 고비용'이라 가볍게 말
하는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과 투표
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거리도 먼 심각
한 현실 속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
분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할 것입니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대한민
국 법이 말하는 재외국민과 동포의 권
리를 말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 대통령 후보가 재외동포
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도
이전에 내놓았던 공약으로 재탕, 삼탕
입니다.

여러분, 동포사회를 위한 실행 가능
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잘 살펴야 합
니다.

대한민국 재외선거제도, 선전적 복
수국적, 출입국, 병역 등 산재한 재외동
포 정책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의 행보가 맞아야 합니다.

더 좋은 재외동포 사회와 다음 세대
를 위해 우리의 힘 투표 참여로 바뀌야
만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
니다 재외선거 등록하고 참여하셔서 좋
은 날 기대해 봅시다 투표 참여로 재외
동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나의 한 표, 투표 참여로 힘 있는 재
외동포 사회의 면모를 보이고 다음 세
대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하
다는 이
유로 투
표 하 지
않고 이
대로 머
물 수는
없습니다.

7 5 0
만 동포
사회를 대변하는 대표가 없습니다.

여러 동포단체가 있지만, 연례 행사
가 주된 일이며 유관한 기관, 의원들과
의 소통과 인사 나눔이 대부분입니다.
재외동포를 대변하여 현 정책을 개선하
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한글, 한국어 교육, 한류, 한상, '독도
는 우리 땅', 소녀상 건립 등 현지 동포들
의 노력과 외침으로 민간외교 활동을 열
심히 하는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를 통해 열정을 쏟는 해외지역 자문위
원들, 한인회와 문화단체, 한글학교 교
사 등 동포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230만
여명의 재외국민 유권자가 나서도록 힘
을 모으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선진 대한민국을 원하는 정
부와 국회에 각국 동포사회에서 투표
참여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동포 인재
가 참여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으로 가
기를 기대하려면 '재외동포 비례대표'
라도 선출돼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700억원을 넘
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에 더 좋은 영향
력을 기대해 봅니다. 750만 동포사회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대우와 제
도를 보장받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
하지만 각 당은 복잡한 생각만 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
투표, 전자투표 등 개선된 제도를 기다
리기에는 목마르고 답답합니다. 불편하
고 힘들지만 더 좋은 동포사회 내일을
위해 차세대들도 당당하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권한 행사를 해야 합니
다. 그래야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 750만은 곧 1천만이
될 것입니다.

다가을 일천만 재외동포사회를 위
한 씨 뿌리는 수고, 투표를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50만 동포사회 유능한 인재와 함께
하는 평화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리더 모
범 국가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참정권의 가
장 중요한 요소인 투표에 대해서 대내
외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위
험부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
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지는
재외국민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투표하면 재외동포사회가 바
뀌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
니다.

투표에 참여합시다.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와의 인터뷰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 촉구, 정기적 행사와 프로그램 계속 추진

(2면의 계속)

주 한인협회가 혼자 일을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와 지방한인
회들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고, 그동안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과 함께 이미 3년 동안 1세들을 위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재단에서 점점차 사
할린을 방문하고 우리 사업을 높
이 평가했습니다. 재단 측에서 우
리가 사용하는 낡은 사무용 기기와
버스를 보고 너무 놀라, 새 봉고차
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
로 협력하는 단체는 물론 대한적
십자사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파
트너인 KIN(지구촌동포연대)인데
특별법 관련 도움도 많이 주고 있
고, 해마다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
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도 제
작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주 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카
로브와 흄스크 시행정부의 협조 또
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 내년 사업계획에는 무엇
이 있나요?

- 물론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
정을 촉구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
이고 내년이면 사할린주 한인협
회 설립 기념해인데 이와 관련하
여 새 계획들도 세울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 아이디어가 있지만 아직
밝히기 이르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사회사업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
이며,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
이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레저
센터(노인정, 경로당 비슷함)를 열
계획입니다. 이미 수리작업에 들어
갔고 3월 말부터 센터가 운영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매년 개최하
는 행사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 때
문에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
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
문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계획을 이미 실
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러 지
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
센터를 찾아 견학과 활동교실을 통
해 한민족 문화체험을 하는 것입니
다. 이번 23일 문화센터를 찾아오

는 여러 관광그룹들에게 사할린 한
인사를 알려주고 문화체험을 하도
록 할 계획입니다.

-새해맞이는 러시아에서 가
장 가정적인 명절로 여깁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새해맞이를
하실건지요?

- 저에게 가족은 항상 최우선
이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때문에
직업과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이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슬프게 하는 유일한 것은 현재 아
이들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은 모스크바에서 살고 일하거든
요. 이전에는 항상 새해 연휴에 사
할린 집으로 왔는데 코로나 19 때
문에 이번에는 오지 못합니다. 막
내아들이 의사라서 병원에서 일하
니 올 수 없고, 올해는 장남이 결
혼해서 며느리가 생겼는데 며느리
가 약사이니 새해 연휴에 쉬는 날
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
정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주한인협회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하여 새해 복 받으십
시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Итогом "Островов поэзии" стали видеоантология сахалинских поэтов в исполнении актер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 А.П. Чехова, новый раздел на сайте СахОУНБ, а также одноименный сборник избранной лирики.

"Острова поэзии" — первая видеоантология сахалинских поэтов, созданная в канун 75-ле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ла своего рода рассказом о поэтическом освоении наших островов. В книгу вошл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27 авторов — членов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жили и твор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27 авторов — три поэт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им Цын Сон, Хе Роман и Ян Сергей).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идеоролики, электронная версия книги, информация о всех 27 поэтах 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включенные в сборник, с 17 декабря доступны на сайте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 специальном разделе "Острова поэзии". Постепенно коллекция видеороликов будет пополняться. А с поэтическим сборнико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ожно буд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о всех библиотеках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библиотеки островных школ,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и клубов, музеев и школ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цу 주민 2만 명 이상이 스키와 하키, 스노보드를 좋아한다

겨울이 4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지속되는 сахалин 지역

에서 동계 스포츠는 сахалин 주민들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전 크로스컨트리는 сахалин주의 스포츠 전문가나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종목이다. 스포츠부에 따르면 сахалин 주민 8천69명이 크로스컨트리를 선호하고 있고, 1천335명은 전문적으로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있다.

다음 아마추어 및 전문가들 사이에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은 아이스하키로 아마추어 3천46명, 전문가638명이고, 알파인 스키는 아마추어 2천626명, 전문가794명이다.

팬데믹 기간에도 сахалин의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 러시아 컵 알파인 스키대회에 출전하고, 청소년 하키 리그에는 'сахалин акул(상어)'팀이 출전해 러시아 빙상 스포츠계의 거장들과 겨룬다는 점에서 강조할 만하다.

스노우보드는 대중적으로 알파인 스키보다 선호도가 떨어져 아마추어1천28명, 전문가123명이지만 성취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세계 선수권대회 2관왕이며, 하강 종목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소피아 나디르시나는 세계 경기에 сахалин 대표 선수로 출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сахалин 지역의 아마추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 동계 스포츠 종목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에서는 대중적이고 복합적인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Около 20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лекаются лыжами, хоккеем и сноубордом

В регионе, где зима длится от четырех месяцев до полугода,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активном и здоровом образе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грают зимние виды спорта.

Классические беговые лыжи являются самой массовой дисциплиной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увлекаются 8069 человек, еще 1335 сахалинцев занимаются 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Далее по массовости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профи идет хоккей с шайбой – 3046/638 и горные лыжи – 2626/794. Тут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уверен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горнолыжников с периодическим попаданием в призы на этапах Кубка России и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акул» в МХЛ наравне с академиями титанов российского ледового спорта.

Сноуборд уступает горным лыжам в массовости – 1028/123, но никак не в количестве достижений. Дву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мира и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в слалом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Софья Надырши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Кроме того, в регионе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и проф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хоккей с мячом, биатлон,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фристайл.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проводятся массовые и комплексные физкультурные события.

(Сахалинцу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